

十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9

-군화에 유린당한 썰 사업-
(1940년 發行分)

이 창 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 백인추방정책과 크리스마스 썰 사업의 중단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썰이 서우드 홀 박사의 구상으로 1932년 12월 3일 발행된 이후 크리스마스 썰 운동은 해가 갈수록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해주 구세요양원의 마지막 발행이 되는 1940년의 썰 도안은 이미 1934년, 1936년의 썰도안과 영국 황실의 그림도 자주 그렸던 엘리자베스 케이트(Elizabeth Keith) 양이 그렸다.

도안의 내용은 색동옷을 입은 두 귀여운 조선아이들을 그린 것으로 배경은 눈이 쌓인 산이었다. 이 도안은 당국에서도 허가를 해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흡족하게 여겼으므로 인쇄후 발송준비를 끝냈으나, 일본 육군 헌병대에서 기습적으로 나와 보급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낸 썰의 상자를 모두 압수해 갔다.

그 이유는 도안 내용이 육군의 국방안보규정을 어겼다는 것으로 첫째, 두 조선 아이를 그렸고, 둘째, 배경의 산이 특정한 산이 아니었는데도 높이 20m 이상의 산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육군 규정을 어기고 눈 덮인 흰 산과 마을을 그



▲ 일본 우표

▲ '40-'41 크리스마스 썰

렸으며, 셋째, 썰에 표시된 1940-1941년은 일본 건국 2600년에 해당하므로 연도를 삭제하라는 것이었지만, 이미 일본 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금강산(1,638m)의 모습을 그린 우표가 1939년 10월 16일에 발행되어 통용되고 있었으니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권력자로 부상한 일본 군부에서 외국인 축출정책의 일환으로 탄압하기 위한 구실이었던 명백한 일이었다.

결국은 케이트 양을 어렵게 설득하여 그림을 수정하였는데, 자세히 보면 수정한 도안에서 어린이와 대문안에 조그맣게 그려 넣은 산의 모습은 원래 그렸던 산의 모습 그대로이며, 초판에서는 두 어린이와 산의 거리가 가까워 산이 높아

보이나 재판에서는 거리가 멀어 어린이와 산의 높이가 같게 되었으며, 문제가 된 연도는 썰 발행 9년이 되었다는 의미로 'NINTH YEAR' 로 바꾸어 재발행을 하였다.

이것은 짓궂게 일부러 그렇게 수정한 것인데도 회화의 원근법을 모르는 일본 육군의 무식한 검열관은 감쪽같이 속았으며, 오기와 기지가 돋보인 케이츠 양의 승리로 끝났는데, 일본 군 당국의 간섭에 대해 최소한 저항의 표시로 초판에 넣었던 'E, K'라는 머릿글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외국인 축출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정든 땅을 버리고 인도로 떠남으로써 1940년을 최후로 하여 썰 발행사업도 아쉽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2 미발행 썰의 전모

이 미발행 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다행히 셔우드 홀 박사가 미리 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러한 썰이 발행했다고 Booklet Pane(4×2)=2매를 편지속에 동봉한 것이 현존하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단편으로도 16매 뿐인 매우 희귀하며 진귀한 것으로 세계



고가(高價) 썰 중의 하나에 속한다.

필자가 몇년전 캐나다의 밴쿠버에 입항하였을 때 홀 박사댁을 방문하여 이 미발행 썰에 대한 경위를 문의하였더니 4매 Block(田형)은 미국 수도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다른 크리스마스 썰 등과 같이 기증되어 현재까지 영구히 보관되어 있으며, 나머지 12매중 4매는 외국인 수집가 손에 들어가고 나머지 8매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3. 썰의 여러가지

a. 전지 : 5×5=25매 (하변지에 한문 보이는 것)

b. 전지 : 5×5=25매 (하변지에 한문 안보이는 것)

c. 무공전지 : 5×5=25매, 시쇄품으로 뒤풀 없음.

a는 정상적인 것으로 하부변지에 Ninth Anniversary of Korean Christmas Seals라는 글이 보이며, 썰 1매의 테두리가 농청색으로 인쇄되어 있고 하변지의 테두리 폭이 넓어서 a는 한문이 있으나 b는 테두리 색과 동일한 색인 까닭에 전혀 보이지 않으니 판이 개판(改版)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썰첩의 요약

2항에서 전술한 “미발행 썰의 전모”와 약간 중복한 느낌을 갖는 것이나, 미발행 썰과 썰첩에서 발생한 것이니 1932년부터 1940년까지를 요약하는 것도 뜻이 있을 듯 생각된다.

(1) A형-5×2형, 11.8×5.7cm, 표지 12.4×5.9cm

(2) B형-3×3형, 11.6×9.0cm, 표지 11.8×9.1cm

(3) C형-4×2형, 10.9×7.3cm, 표지 11.1×7.5cm

A, B, C형에 대하여는 발행년도 마다의 해당 항을 참조하여 주기 바라며 중

복하여 기술을 피하기로 하고 요약과 파악을 위하여 일람표를 작성하여 보았다.

1940년의 싹침은 실제로는 4×2형이 먼저 만들어 졌으나 일본 군국주의자의 백인종출정책으로 말미암아 몰수 당하는 해프닝으로 미발행에 끝났다.

5×2×5=50매 싹침만이 제작하게 되었으며, 미발행에 끝난 4×2의 싹침은 일람표에서 제외하였음. 세계 제2차 대전당시의 일본 군국주의자로 말미암아 싹의 발행이 중단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미발행 싹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로니



해주요양원 발행 싹침 일람표

번호	연도	도 안	팬 형 식			특기사항	팬 수
			5×2	3×3	4×2		
1	1932	南大門	○				5
2	1936	同上	○				"
3	1933	캐롤 부르는 남·여	○				"
4	1934	아기업은 여인	○				"
5	1935	널뛰기		○		1판	6
6				○		2판	"
7	1936	연날리기	○				5
8	1937	팽이치기	○				"
9	1938	제기차기	○			50셀	"
10					○	25셀	4
11	1939	그네뛰기	○			50셀	5
12					○	25셀	4
13	1940	때때웃 입은 소년·소녀	○				5

- 1935년의 마지막 팬 : 5셀과 크리스마스트리와 한국지도의 4매의 TAB 있음.
- 1938, 1939년의 마지막 팬 : 셀 1매와 TAB 1매 뿐 임.

결한 일이다.

5. 썰의 VARIETY

a. 용지—Green's Catalogue에 의하면 투문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나 필자는 미발견이다.

b. 천공—지금까지의 천공은 단식 11이었으나 이 썰은 10, 10½, 11의 세가지가 있다.

c. 복잡자의 탈락—전지의 썰 위치 No. 1과 No. 2에 복잡자가 탈락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테두리가 넓은 개정판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6. FOLDER

조선 종이에 171×240mm의 크기로 FOLDER로서는 너무 커서 원 도안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다. 축소된 썰에는 생략된 것이 많으나 이것은 매우 정교한 목판인쇄로서 높은 산(山)도 또렷이 그려져 있으며 재판의 도안인데도 ELizabeth Keith라는 서명도 들어 있다.



7. 각종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교
발 행 년 도	1940년	
도 안 내 용	대문앞의 어린이	
도 안 자	ELIZABETH KEITH	
인 면	27×31mm	
천 공	10, 10½, 11	
쇄 색	5도	
판 식	평판	
전 지 구 성	5×5=25매	시제품의 무공전지 있음
판 매 가 액	2전	
Booklet Pane 구성	5×2 Pane=10매	50매 썰첩 (판매가 1원)
Booklet Pane 규격	5×2 Pane (144×77mm±2mm)	
인 쇄 소	보진재	

8. 참고문헌

- 1).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1978, Mcl Associates, McLean Virginia by Sherwood Hall
- 2).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 3). 닥터 홀의 조선회상, 김동열 역, 1984, 동아일보사 卍